



단일사회 정치론 서설

김 영 명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한 방법은 다른 나라에 없거나 희귀한 특수한 한국의 조건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단일 사회'라는 특징을 지닌다. 같은 자연 환경과 동일한 역사를 지닌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은 한국의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에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안정성이라는 속성들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멀리는 조선시대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들은 한국의 정치 발전, 곧 민주주의의 심화와 제도화에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다. 세계화와 외국인의 유입으로 단일사회적 조건에 변화가 올 수도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과제는 이런 요소들을 정치 발전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주제어: 단일성,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안정성

I. 머리말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 그 가운데서도 주로 미국 정치학의 분석 방법과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되어 왔다. 보편성을 전제한 그런 분석들은 한국 정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서양 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특수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지라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러한 특수 상황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연구는 주로 정치문화론 분야에서 나타났다.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치 문화의 특징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는 방법론 상으로는 이른바 ‘한국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 정치 문화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권위주의나 가부장주의 등 유교적 전통을 부각시킨 연구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적 가치관, 탈물질적 가치관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어수영 1997; Shin 1994).

정치 문화 분야가 아닌 쪽에서 나타난 한국의 독특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분단 상황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전면에 내세워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김영명 2006).

이 논문에서 글쓴이는 위 연구들에서 포착하지 못한 한국의 독특한 현실에 착안하여 그것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단일 사회’라는 조건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국 정치에 어떤 특징을 부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이 처한 단일 사회적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 대화 차원에서 거론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유교 전통이나 분단 상황 못지 않게 이 조건이 한국 정치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요인이 중요한 또 하나의 까닭은 앞의 요인들과는 달리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한국적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적인 영향의 성격과 그 발현 분야는 각 요인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한국 정치의 형성에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관심과 비슷한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주한 미 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낸 바 있는 그레고리 헨더슨은 1960년대에 이미 한국에 대한 ‘소용돌이 정치’론을 전개하여 우리의 관점과 비슷한 관심을 보였다(헨더슨 2000). 이 책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국 정치 연구의 한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연구를 이어받거나 아니면 이를 활발히 비판하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기이하다. 아마 그가 본격적인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나 싶다. 사회학자 임현진은 헨더슨의 분석에서 힌트를 얻어 한국 사회를 ‘중심

지향적 사회'로 보고 '단극성', '작은 사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단일사회와 비슷한 착안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임현진 1999).

단일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학계나 평론계에서 '동질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이것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학술적이든 비학술적이든 체계 있게 언급한 적은 없다. 동질 사회와 이질 사회의 정치사회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흥미롭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주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관심 밖이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두드러지는 나라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아니, 실제로 일본은 동질성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한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과 일본에 관심 있는 서양인들은 일본을 서양 사회와는 다른 동질 사회로 파악하고 일본인의 특성을 구명하려는 '일본인론'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종적 사회 개념(나카네 1996)과 대외적인 폐쇄성에 대한 강조였다(볼페렌 1991). 일본인과 그 역사의 동질성이 일본 안의 수직 질서나 밖으로의 폐쇄성을 만들었다는 주장들이다.¹⁾ 위 두 연구는 각각 그 당시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본학 연구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응되는 사회과학에서의 한국학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본의 특징들은 상당 부분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도 한다. 그만큼 한국의 정치·사회 문화와 일본의 그것은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위 연구들과는 달리 종적 사회도 폐쇄성도 아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해명하려는 단일사회의 정치사회적 특성은 다른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단일성은 동질성과 비슷하나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민족' '동질 사회' 등은 서로 교차하여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단일 사회로 통일한다. 특히 흔히 사용되는 단일 민족 개념과의 일관성

1) 동질 사회가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종적 사회라는 점은 좀 더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이니 그 동질 사회 안에서 위계질서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복합 사회, 다원 사회에서는 위계질서가, 개별 집단 안에서 어떻게 몰라도 사회 전체에 만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적 사회론자인 나카네조차도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을 생각할 때 이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다.

II. 한국 사회의 단일성과 그 정치적 의미

그러면 한국이 단일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한국이 단일 사회라고 규정하는가? 한국이 단일 사회라고 하는 말은 한국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회에 비해 동질성 또는 단일성이 두드러진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단일 사회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보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은 문화적, 지리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단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 모습을 간단히 보자.

우선, 다른 민족이 1%도 없고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가 구성된 나라는 한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외에 거의 없다. 동질성의 신화를 내세우는 일본도 한국인, 중국인 등 외국인과 아이누, 오키나와 종족이 섞여 소수 민족이 2~3%는 존재한다.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명제에 대한 반발이 요즘 와서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것은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 민족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한국인에 여러 인종이 섞였다거나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단일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민족이 된 역사가 짧다거나 한국에 지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실 또는 주장들을 펼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이 시론의 본질과는 어긋난 것들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한민족이 단일 민족인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국인이 아무리 많이 거주하더라도(실제로 인구 비율상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들이 하나의 또는 여러 사회 '집단'으로서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의식 구조에 영향을 줄만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²⁾

2) 좀 더 구체적으로, '단일 사회'론이라는 말에서 바로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찬성하지 않는다. 박정희가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독재에 이용했다는 점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가? 또 한국이

물론 한민족도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북방계, 남방계 등 몇 개의 인종이 섞여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전에 인종이 섞였다고 하여 지금의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생물학적 인종과 사회문화적 민족을 혼동하였거나, 아니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측면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과도한 주장이다. 우리가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고수할 필요는 없지만, 생물학적 혼성을 이유로(그 혼성이 얼마나 큰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한민족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설사 역사적으로 여러 종족이 섞였다고 하더라도 한민족에게 똑같이 섞인 것이므로 민족적 단일성이라는 점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민족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공통의 역사를 지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회·문화적 공동체다. 한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것은 늦어도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부터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한국 사회가 단일 사회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단일 사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일 사회는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 가운데 민족, 인종, 언어,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를 가리킨다.³⁾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거나 카스트 같은 념을 수 없는 계급 구획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민족적 단일성 뿐 아니라 문화적 단일성도 두드러진다.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천 년 이상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여 왔으며, 민족사의 영토도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문화와 언어, 관습, 전통에서 단일한 문화권을 형성했다.

게다가 한국은 땅덩이가 좁을 뿐 아니라 자연 조건이 다양하지 않고 단일하다. 어디를 가나 뒷동산과 앞 냇물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모습이다. 아름다운 풍경이기는 하나 산수의 다양성이 없다. 백두산 부근을 제외하고는 높은 산이라고 해야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국수주의 이데올로기가 되는가? 아니리라 본다.

- 3) 종교의 경우는 특이하다. 한국에는 비슷한 세력의 종교가 복수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사회정치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에 따른 사회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는 다른 다종교 국가. 이를테면 레바논 같은 경우와는 다르다.

높이가 2,000미터가 채 되지 않으며, 거대한 강이나 평원이나 사막도 없다. 땅의 모습이 단일할 뿐 아니라 기후 또한 단일하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가장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가 상당히 나기는 하나 제주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다른 기후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네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여 연교차가 큰 편이지만, 이런 기온 조건이 한반도 전역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기후나 풍토에 따른 사람들의 심성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과 한국 사람들은 단일하다.

이렇게 보았듯이, 한국과 북한의 단일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그러한 독특성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이든 주지 않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논문의 핵심 가설이자 주장은 그러한 단일성이 한국 정치에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속성들을 자세히 논의하기에 앞서, 이 두 쌍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

우선,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동질성과 단일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치관, 사고 방식, 행동 양식이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다. 사회구조도 획일적이다. 이런 모습은 국가 전체의 구조 뿐 아니라 나라 안의 여러 하부 구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획일성은 다른 한편으로 정치사회적 응집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 위기시에 보인 한민족의 단결심과 응집성은 임진왜란 때의 민중 거사나 최근의 월드컵 열풍 등에서와 같이 역사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는 사회·문화 구조가 단일하고 따라서 다원적인 경쟁이나 갈등 또는 견제의 요소가 적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은 힘센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단일성의 결과로 사회의 권력과 지위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집중성이 두드러진다. 한국 국민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인종적 갈등이 없다. 그 대신 단일 민족 내부의 지역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균열 사회의 민족적-인종적-지역 갈등보다 훨씬 정도가 덜하다. 그래서 중앙 집중이 더 잘 된다. 이런 점은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국 사회의 일관된 특징이다.

한편 한국 사회와 정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다. 치안이 비교적 잘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도 격동을 겪기는 하였으나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균열 사회, 예컨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여러 사회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편이다. 이러한 안정성 역시 한국인의 본질적인 동질성 또는 단일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에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들 들어 분단 상황은 정치적, 이념적 획일성을 야기하였으며,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경제적 집중성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과 단일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이 논문의 범위 밖이다.

어쨌든 한국 사회의 단일성이라는 조건이 야기한 획일성, 집중성, 안정성, 응집성의 정치적 속성들은 한국 정치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속성들이 한국 정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또 앞으로의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I. 단일사회 정치의 특징

1. 획일성과 당파 싸움

이 항목의 제목을 획일성으로만 하지 않고 ‘획일성과 당파 싸움’으로 한 것은 그만큼 까닭이 있다. 한국 정치 지형의 획일성이 정치 싸움을 좁은 당파 싸움에 국한시킨다는 뜻이다. 먼저 한국 정치의 획일성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원초적 갈등의 토양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족, 인종, 종교,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원초적 갈등이 한국에는 없다. 한국은 분열 사회, 다원 사회 또는 복합사회가 아니라 단일 사회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치세력들의 경쟁은 다원화되어 있지 않고 첨예하게 쪼개져 있지도 않다.

게다가 한국 정치를 형성하는 이념과 가치관도 다양하지 않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념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하나 사실 이는 이념 갈등이라고 하기 어려운 ‘성분 갈등’에 가깝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권력과 지배를 향한 당파 싸움이 핵심이다(김영명 2006, 제13장). 한국의 이념 갈등은 해방 직후와 1980년대 중후반

에 두드러졌다. 그 기간에서조차 좌파가 집권할 확률은 영에 가까웠다. 이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가치관'에서조차 한국 정치세력들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종교 이념을 내세우는 정치세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념과 가치관이 지배하고 이에 대한 반대 세력은 미약하다. 세계에서 가장 그런 편에 속한다.

지금 진보파가 득세하여 이념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 이념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 정권의 사회경제적 정책은 좌파이기는커녕 전형적인 우파 정책이다. 주요 정파들 사이의 이념 차이가 있다면 경제사회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과거사, 북한 문제 등 역사나 정치적인 면에서 존재한다. 더구나 그 차이도 온건 진보와 보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거리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워낙 이념적 획일성에 몰들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이도 과장해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제도권 정당 중 가장 진보적 또는 좌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령도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으며, 단지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더 강조하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더 늘리겠다는 정도다. 물론 그 안에 좀 더 급진적인 분파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대체로 프랑스의 사회당이나 독일의 사회민주당 정도의 노선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극좌의 자리를 차지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집권한 주류 다수 정당과 비슷한 이념의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10% 정도의 지지를 얻는 주변 정당일 뿐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극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우리 이념의 폭이 좁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한국의 이념적 획일성은 반공 이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맹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빈약하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매우 획일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주류 가치가 결국 자본주의의 물신 숭배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념은 획일적이다.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에서 유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맹목적이라 할 정도로 추종한다. 생명이나 인권, 환경 또는 연대를 중시하는 이른바 반세계화의 가치나 운동이 산업화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이념적 획일성은 직접적으로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민족적 상황과 미국의 실질적인 위성이라는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상황의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시에 더 깊은 문화적 뿌리가 역사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기 쉬운 한국 사회의 단일성이 한국의 이념적 획일성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분단 상황과 관련 없는 이념적 획일성의 대표적인 보기를 조선조의 성리학 지배에서 볼 수 있으며, 지금 보이는 이념적 다양성의 결핍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성리학의 경우처럼 주류와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민족적 단일성과 작은 나라의 집중화된 구조가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이념적 획일성 때문에 정치 경쟁이 이념이나 노선 경쟁이 되지 못하고 당파 이익 싸움으로 귀결된다. 정책 경쟁이 아닌 당파 이익 싸움은 지역과 인맥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한국 지역주의의 한 본질이 여기에 있다. 독재 시절에는 일인 지배 아래 당파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민주화가 되고 강력한 지배자가 사라지자 지역주의 당파 싸움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을 보면 그것이 국가의 진로라든가 사회경제 정책 노선이라든가 통일 정책에 관한 싸움이 아닌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념으로 포장한 좁은 정파 이익 다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당파 싸움의 편가름이 계급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 역시 한국 사회의 이념적 획일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집중성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한국 사회의 집중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단일 사회에서는 권력의 중추가 다양하지 못하고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민족이나 종교에 따른 여러 개의 권력 중추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번 집중된 권력은 스스로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집중성이 점차 심해져 왔다. 그러면 이러한 집중성은 한국

4) 이 '쏠림'과 아래에 나올 '휩쓸림'은 한국 사회와 정치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쏠림은 한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나 그 상태'를 말하고 휩쓸림은 한 쪽으로 몰리는 '행동 양태'를 말한다. 어찌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속성들 중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의 세 가지를 이 두 표현으로 압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한다.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정치 권력의 집중과 일인 지배체제를 쉽게 했다. 권력이 집중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주의 독재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물론 권위주의 독재는 이 차대전 뒤에 독립한 신생국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거기에 일인지배 체제라는 특성이 더해졌다(김영명 2006). 원초적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는 도전 권력의 중추들이 있기 때문에 한 권력자가 장기집권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와는 달리 단일 사회의 구조가 일인 지배와 장기 집권을 쉽게 했다.

한국에서 일인 장기 집권 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첫째로 그만큼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저항이 미약했기 때문이었고, 둘째로 집권 세력 안에서도 개인 독재자를 견제할 만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두 현상이 나타난 까닭 역시 일제와 대한민국을 이어온 개인 권력 중심의 권위주의 구조와 그 결과 나타난 정치 제도의 미발달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치 권력의 개인화는 1987년 군부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정치적 민주화로 들어선 뒤에도 이어져서 이른바 '3김씨'가 정치와 정당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권력의 집중성은 비단 국가나 집권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 지배자가 권력을 독점하는 개인 지배 체제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일인 지배의 권력 집중성은 지배 권력 뿐 아니라 여러 정치 집단들 안에서 보인다. 바로 얼마 전까지, 다시 말해 김대중 대통령 퇴임 때까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의 일인 지배에 있었다. 정권 내부에서도 그랬고, 외부 곧 야당이나 민간사회에서도 그랬다. 그만큼 국가 권력과 개인 지배자가 대항 세력이 미처 성장하기 전에 권력과 강압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도 원초적 구분(민족, 종교, 언어 등)에 바탕을 둔 대항세력이 없었던 한국의 단일성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정치와 정당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이었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의 국민회의였고 김영삼의 신한국당이었지 거꾸로는 아니었다. 그러니 새 권력자가 들어서면 이전 권력자의 정당을 없애고 새 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상황과 단일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권력 집중은 최근까지 지속되었는데, 요즘에는 민주화가 진행되다보니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은 많이 누그러졌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집중화 현상이 다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 일인 지배체제

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사회적 조건을 넘어서는 민주 제도의 발달이라는 요소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단일사회적 조건이 한국 정치의 모습에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좋은 증거다.

둘째, 한국 사회의 집중성은 권력과 부의 수도권 집중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중앙 집권에는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이 큰 구실을 한다. 동질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권력의 중심이 여러 개일 수가 없다. 비슷한 사람들끼리이니 그 중심도 하나로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힘의 다양한 원천을 이루는 인종이나 종교나 언어와 같은 원초적인 구분도 없고, 이념도 반공주의로 확일적이니 다원적인 힘의 이념적 기반도 없다. 그러니 힘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쪽은 자연히 수도 서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주도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와 정치가 유착하고, 수도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모두의 단일 핵심이 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나라가 작아서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작다보니 여러 개의 핵이 생기기보다는 한 핵으로 집중되기가 쉬운 것이다. 물론 분권화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중앙 집중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앙 집권의 구조는 강력한 국가 체제가 떠받쳤다. 조선 왕조도 관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였지만, 근대적 중앙 집권 국가는 일제 때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는 이른바 '과대 성장' 하고 시민사회는 발달하지 못하였다. 일제의 유산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의 전통을 들 수 있는데, 이 전통이 박정희 군사 정권에 고스란히 이어졌을 뿐 아니라 더 강화되었다. 이 상황에는 물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분단 상황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일부 군부-관료 집단에 집중되던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은 급기야 박정희 일인 장기집권 체제로까지 타락하게 되었다.

한국에 지역주의가 강하다고 하지만 이는 선거와 투표 행태에서 나타나는 정도다.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거나 지역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다른 정치적 차이, 곧 이념 차이, 계급 의식 차이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위 확일성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 지역주의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울-수도권의 절대적인 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지역주의를 주로 영호남의 대립으로 생각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주의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한국 사회의 다원성이 아니라 그 반대인 집중성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

3. 응집성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력이 크다. 또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민족으로서 외국의 침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족 의식이 남달리 강하다. 한국 사람들은 단결할 줄 모른다는 오래된 자조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의 얘기지 외국과 관련되거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되풀이 얘기하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원초적 분열이 없고 모두 '우리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응집성이 크고, 특정 상황에서 국민적 단합이 쉽다.

이러한 국민적 단합은 대표적으로 정부 주도 산업화에서 나타났다. '조국 근대화', '총화 단결' 등의 구호를 앞세운 권위주의 정부의 산업화 주도를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비교적 잘 따랐다.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는 저항도 있었지만, 국가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저항이나 대안 제시가 없었다. 박정희의 국가 건설 주도는 단일 민족, 획일 사회의 뒷받침을 받아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응집성은 특정한 국가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고는 하는데, 2002년의 월드컵 대회에서 보여준 국민적 단합과 열기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나라 바깥을 향한 국민적 단합의 가능성과 함께 권위주의 선동이 쉬울 수 있는 한국인의 기질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데서도 나타났다.

5) 한국 사회의 집중성을 견제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평등 의식이다. 이 평등 의식은 일제 강점과 토지개혁, 전쟁으로 양반 계급과 지주 계급이 해체된 역사 때문에 형성되었지만, 다른 한편 단일 사회적인 한국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다 같은(단일한) 사람들이니 사회·경제·정치적으로도 다 같아야(평등해야) 한다는 의식이 한국인에게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 모으기는 경제 수치로 보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역시 국민 단합과 그 부정적 측면인 집단주의-권위주의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런 일을 외국에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을 잘 보여준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점들을 보면, 한국인의 응집성은 또 다른 속성들인 획일성, 집중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집된 행동은 일치된 단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종종 '휩쓸림의 정치'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가장 비근한 보기가 2006년의 5·31 지방선거였다. 여기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지방자치단체장 16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을 휩쓸었으며 득표율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2배를 얻었다.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선거 결과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지나치다. 한 쪽으로 쏠리기 쉬운 한국인들의 행동 양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런 정서적인 휩쓸림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한국인을 '모래알 민족'이라고 비하해 왔다. 또 한국 정치의 한 특징으로 파벌 싸움을 들기도 한다(헨더슨 2000). 이런 점은 한국인의 응집성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한국인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파벌 싸움에 휩쓸린다는 지적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분열을 일삼는다는 비판은 일제 통치자들이 퍼뜨렸다. 그런데 피지배 민족은 독립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분열과 반목이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다. 힘과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력한 구심점이 없고 지배자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또 가난한 후진 사회 역시 먹고 살 것이 모자라고 법과 제도, 사회윤리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 시기와 반목,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니 이런 역사적인 이유들 때문에 생긴 과거의 한국 경험을 지금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조선 시대의 정치나 현대 한국 정치 모두 본질적으로 파벌 정치 또는 당파 싸움 정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까닭은 근본적으로 정파들의 구분이 민족이나 종교와 같은 원초적 이해 또는 이념이나 정책 같은 사회 발전의 대안에 입각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이 없는 정파들이 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 투쟁하기 때문에 파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인이 “분

열과 파벌을 일삼는다”는 것과는 다른 뜻에서의 정파 싸움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은 한국인의 응집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응집성이 이익의 분열마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안정성

단일사회적 조건은 한국 정치를 본질적으로 안정되게 만든다. 아니, 그보다는 불안정 요인이 다른 변동 사회에 비해 적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한국 정치가 본질적으로 안정된 정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한국 정치는 독재와 민주화 투쟁, 4월 봉기, 광주 사태 같은 커다란 변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소란스러운 당파 싸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 그 변화는 역동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다 인정하더라도 한국 정치는 다른 변동 사회와 비교할 때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선 한국 정치가 아무리 역동적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반공-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틀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분단과 대미 종속의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일사회적 조건이 낳은 획일성이라는 국민적 속성도 작용한다.

한국 정치가 안정된 두 번째 증거는 그 변화가 기간으로 볼 때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승만이 12년 집권하였고, 박정희가 18년 집권하였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정부의 짧은 일화를 제외하고는, 권위주의 체제가 건국 이후 노태우 취임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내란이 잦고 집권자의 강제 교체가 빈발한 다른 정치 후진국들에 비해 한국 정치는 매우 높은 안정성을 누렸다. 물론 단일사회가 아닌 곳에서도 독재자의 장기 집권은 나타난다. 중국이나 쿠바 등 혁명적 사회주의 체제나 대만, 이집트 등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체제도, 단일 사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축하는 체제도 아니다. 하나의 민족이나 인종이 지배적인 곳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독재자의 장기집권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일인 장기 지배체제가 확립되어 정권 교체도 자주 일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특정 정권들이 반대와 저항 운동을 억누르고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큰 차원의 정치 갈등은 주로 권위주의 현실과 민주주의 이상 사이의 갈등이었고, 이는 원초적 기반의 갈등, 예컨대 종족의 사활이 걸린 투쟁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치는 폭력의 정도를 보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덜한 편이었다. 광주 항쟁에서 수백 명과 4월 봉기에서의 수십 명의 희생을 생각하더라도 독재 40년 동안의 희생으로 따지면 비슷한 발전 단계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정치 테러도 해방 직후의 몇 건과 북한 공비 침투를 제외하고는 없는 편이다. 선진 민주 사회에서는 정치 테러가 적은 것이 정상이지만,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많다. 인종-민족이나 종교적인 분열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에 왜 정치 테러가 적을까? 여기에도 역시 단일사회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 정치 갈등의 종류가 적고 그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이라 종족 사이에 투쟁할 일이 없고 인종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으며 종교 전쟁도 있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 분리 운동,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 운동, 이라크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 쿠르드 족 독립 운동, 미국의 인종 갈등, 심지어 동질 사회라고 자처하는 일본의 재일 한국인 문제 등등, 이들 모두는 사회정치적 불안의 원천이다. 물론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다른 민족들이 한 국가 테두리 안에서 큰 갈등 없이 공존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그 성취는 매우 역동적이었지만, 그 과정 또한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이 아니라 점차적인 일종의 '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군부 권위주의의 일원이었던 노태우가 국민의 압력에 못 이겨 민주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군부 세력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는 야당 투사이던 김영삼이 구세력과 연합하여 정권을 쥐고 권력의 '민간화'를 완성했다.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김대중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민주주의의 단계적 진화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일인 지배 체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는, 여전히 많은 문제에 싸여 있지만, 적어도 민주화 과정에서 '진화 모델'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동안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상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에도 한국의 민주화는 매우 안정된 단계적 진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안정성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의 폭과 속도가 작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 체도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치 안정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안정성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문자 그대로 안정이 아니라 변화의 느낌을 뜻하기에 더 그렇다. 한국 정치는 민주화를 향해, 그리고 개인 통치에서 제도적 정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궁극적 지향점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념의 폭이 좁고 사회 발전의 대안이 제한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궁극 지향점에 대한 이해의 폭 역시 매우 좁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유럽이나 남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비교적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없다.⁶⁾ 그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미국에 군사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단일사회적 조건이 그런 상황을 강화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 정치는 현대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혁명적 변환을 겪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겪지 않을 것이다. 정치 변화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안정과 모자람의 결합체가 될 것이다.

IV. 단일 사회와 정치 발전

그러면 이러한 단일사회적 조건과 거기서 파생하는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안정성의 특징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 발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 발전은 국민 통합, 안정, 민주화, 제도화, 투명화, 효율성 제고 등 많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수준별 차이가 있다. 국민 통합과 안정은 정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며, 이는 비단 정치 차원 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국가 형성과 발전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본다면 위 요소들 가운데 민주화와 제도화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투명화, 효율화, 그리고 안정화 등은 민주화와 제도화

6) 유럽의 대안에 대해서는 리프킨(2004) 참조.

의 필요조건이거나 이 두 요소에 포함되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 제도의 심화가 정치 발전의 궁극 목표이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정치가 안정되고 투명해지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 발전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심화와 제도화로 규정할 수 있다. 지도력(리더십)이나 정치문화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민주화는 정부의 대표성 및 시민 참여의 확대와 자유·인권 신장을 의미하고, 제도화는 정당, 국회, 행정부, 참여 경로, 법 절차 등 제도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합쳐서 말하면 정치 발전은 결국 민주 정치체도의 발전을 말한다. 이 요소들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정치 발전의 이상이다.

그러면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은 이러한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 발전의 기본 요소들인 국민 통합과 안정, 또 그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한국의 단일사회적 속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첫째, 획일성은 국민 통합, 안정, 정치체도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평등 의식도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획일성은 다양한 선택을 가로막아 민주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집중성은 획일성과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 안정과 제도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집중성은 권력 분산과 민주화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셋째, 응집성 또한 획일성, 집중성과 마찬가지로 같다.

넷째, 안정성은 안정 그 자체가 정치 발전의 한 요소이다. 한국 정치는 앞으로 큰 난리를 겪지 않을 것이니 그 점은 한국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그 말은 한국 정치체제가 아주 이상적인 체제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국은 단일사회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안정, 제도화에 유리하다. 그 반면 같은 조건이 정치이념과 가치 선택 폭을 좁게 만들어 민주주의의 심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념적으로 좁고 중앙으로 쏠리면서 비교적 안정된 정치가 한국에서 계속될 것이다. 인권 강화나 정치 참여의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심화의 요건들은 단일사회적 조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소수 민족 문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 정치의 안정에 유리

하다고 할 수 있다.

V. 단일사회의 변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정치의 특징들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한국의 단일 사회적 조건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거기서 파생하는 정치적 특징들도 변할 수 없는 것들인가? 여기서 문화론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미와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한 마디로, 문화는 인간 행동을 속박하는 구조적 조건이지만 그것이 사람 행동의 모든 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또 그 문화 자체도 변한다는 사실도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단일사회적 특징, 그 조건과 속성들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글쓴이의 견해로는, 단일사회라는 한국의 '조건'은 본질상 바뀌기 어렵지만, 거기서 파생한 한국 정치의 '속성'들은 그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확일성 등의 속성들이 단일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한국의 특수한 조건인 단일성이 얼마나 유지되거나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많은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필자는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이 약화된 형태로라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단지 변화하는 현실의 방향과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하리라 본다. 우리 사회의 단일 민족적 특징은 유지되겠지만,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올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한국인의 정치적 특징 자체를 바꿀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정치적 문제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조류가 국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화 현상인데, 이런 점은 '단일사회' 한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세계화가 단일사회론의 근거를 흔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이다. 세계화의 결과로 외부의 문물과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이 허물어질 것인가? 그런 점이 전혀 없을지는 모르나, 이는 과장된 생각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결과 한국인들의 사고와 행동이 더 '세계화' 될 것임에 틀림없고, 그 결과 한국의 단일사회적 속성이 어느 정도 약화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일 사회의 본질 자체를 허물고 한국을 다민족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논점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화 조류를 받아들이는 자세 역시 단일사회적 조건에 영향 받는다는 점에 있을지 모른다. 단일사회 구성원들의 응집성, 집중성, 획일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획일적이고 충실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현상을 보기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단일사회적 조건은 주로 민족, 인종, 언어라는 사람 집단의 원초적 구분에 따른 것이다. 이와는 다른 현상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계급 구성원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그러한 격차가 비단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것이 한국의 단일사회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거리이다. 계급들 사이의 차이가 심화되어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인가? 또 그 결과 한국, 한국인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획일성, 집중성, 역동성, 안정성의 특징을 잃을 것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단일사회적 속성들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차적 구분인 계급 구획과 그 결과 나타나는 계급들 사이의 문화 차이가 원초적 조건인 민족적 단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의 분화나 계급 분화에 따른 다원성의 증대 같은 것은 아무리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단일사회-복합사회 또는 동질 사회-이질 사회의 구분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한 사실은 한국에서의 계급 격차 심화 역시 단일 사회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는 민족·인종적 구분과 격차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계급 격차는 그러한 원초적 기반에 입각할 수 없고 주로 학벌 사회의 심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학벌주의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한 까닭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원초적 기반의 단일 사회론과 이차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이질화를 관계 지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VI. 결 론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단일사회라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한국 정치의 일상과 그 변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이 한국 정치의 여러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영향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며,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 밝힌 한국의 단일사회적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이지 한국의 정치 구조와 한국인의 정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은 아니다. 한국의 정치가 그 밖의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단일 사회적 조건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단일사회적 조건과 여기서 밝힌 네 가지 속성들 사이의 관계도 변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단일성이 반드시 획일성, 집중성, 응집성, 안정성을 유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만약 그렇다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유발하는 정도가 바뀌지 않는지 하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이 시론은 세계에 보편적인 여러 사회 현상들이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특하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다. 보편 현상인 세계화, 민주화, 또는 산업화의 과정이 한국에서 단일 사회적 속성과 어떻게 결합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보편 현상이 이렇게 많은데 단일사회론 같은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식의 예상되는 질문은 이 소론의 의도에서 벗어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설명이 불충분한 하나의 ‘시론’에 불과하다. 이 시론에서 제시한 가설들이 더 큰 의미를 지니려면 많은 경험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설문 조사와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유형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경험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이 소론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를 내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연구를 실제로 해야 하며, 다른 사회들과의 체계적인 비교연구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적 연구가 쌓일 때 이 단일 사회 정치론의 진정한 값어치가 평가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06. 『한국인 코드』.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서울: 제이플러스 애드.
- 김경동. 2002. 『한국 사회 발전론』. 서울: 집문당.
- 김동춘. 1997. 『분단과 한국 사회』. 서울: 역사비평사.
- 김영명. 2006. 『한국의 정치 변동』. 서울: 을유문화사.
- 김영명. 2005. 『신한국론: 단일사회 한국, 그 빛과 그림자』. 서울: 인간사랑.
- 어수영. 1997. 『가치 변화와 삶과 정치: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4개국 비교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종희. 1999. “현대 한국의 가치 체계의 기원과 변동.” 김일철 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이해』. 서울: 아르케.
- 임현진. 1999. “국가와 지배 구조: 중심 지향적 사회의 세.” 김일철 외. 『한국 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박행웅 이종산 역. 2000.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서울: 한울 아카데미).
- Nakane, Chie 저 · 양현혜 역. 1996. 『일본 사회의 인간 관계』. 서울: 소화.
- Rifkin, Jeremy 저 · 이원기 역. 2004. 『유러피언 드림』. 서울: 민음사.
- Shin, Doh Chull. 1994. *Mass Politics and Culture in Democratizing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Wolferen, Karel Van 저 · 양찬규 역. 1991. 『일본의 권력 구조』. 서울: 시사영어사.

ABSTRACT

A Preface to Singular-Society Politics: The Korean Case

Yung-Myung Kim | Hallym University

One method to study Korean politics is to investigate the unique features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and their impact upon Korean politics. Korea is a “singular society” with its singular natural environment, singular history and, most of all, a singular nation without any significant minority ethnic groups. This rather unique condition of Korea’s provides Korean politic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monism, centeredness in various spheres, cohesiveness, and relative stability. We partly found these characteristics in as early as the Yi dynasty but typic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 We find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se characteristic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Korea’s singular-society condition may change in the future with more immigration of foreign people and more importation of foreign culture, but a fundamental change in this regard is not around the corner. The task, in this situation, for Koreans is to utilize the advantages and control the disadvantages of Korea’s singulari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Keywords: singularity, monism, centeredness, cohesiveness, stability